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속 지식인 청년상 고찰

- 이근영의 『第三奴隸』와 엄홍섭의 『人生沙漠』을 중심으로

정 하 닷*

[국문초록]

본고는 이근영의 『제삼노예』와 엄홍섭의 『인생사막』을 중심으로, 일제 말기의 대중소설 속에서 지식인 청년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나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던 이근영이나 엄홍섭이 각종 통제가 강화되던 일제 말기에는 연애서사가 중심이 된 통속성이 강한 신문 연재소설을 발표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소설이 ‘통속소설’ 혹은 ‘대중소설’로 분류되며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또 이 시기에는 통속적인 연애담을 통해 주인공인 당대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편소설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제삼노예』와 『인생사막』은 그런 류의 소설에서도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 소설이다.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이런 부류의 소설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강사

주제어: 대중소설, 통속성, 연애담, 지식인 청년, 일제 말기, 엄홍섭, 이근영, 『第三奴隸』, 『人生沙漠』, 도덕성, 신념 지향성, 동지적 관계
the popular novels, the popularity, the romance, the young intellectuals, the lat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Lee Gun-Young's The Third Slave (『第三奴隸』), Um Heung-Sup's The Desert of Life (『人生沙漠』), the ethicality, conviction-oriented, the relation of comrades

의 특징을 온전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삼노예』와 『인생사막』의 연애담이라는 통속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청년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제삼노예』는 ‘돈’·‘욕망’·‘신념’이라는 속성으로 대표되는 여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허일은 사랑보다도 ‘돈’과 ‘양심’이라는 문제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신념을 택하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근영의 이 시기 단편소설에서부터 나타나는 지식인상으로, 통속적으로 보이는 연애관계를 주요 서사로 했으나 강조하는 바는 같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인생사막』은 ‘명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제가 요구하는 ‘온건착실’한 도덕성을 가진 건전한 청년 오세형과 그를 둘러싼 다각관계를 그린 소설이다. 오세형의 ‘온건착실함’은 체제의 이념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실함을 미덕으로 하여 연적 관계인 악인 유영섭까지를 갱생시키는 계몽적 주체를 그린다. 이러한 세형의 착실함은 ‘연애관계’를 같은 이상을 향해 함께 가는 ‘동지적’ 속성을 지닌 관계로 재정립하면서 이상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제삼노예』와 『인생사막』 속 지식인 청년들은 이렇듯 전망을 갖기 힘든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갖춰야 할 새로운 청년상을 부여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서론 — 대중소설로의 전향과 통속성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통칭 일제 말기에는 대중소설이 많이 발표되었다. 대중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양식이 일제 말기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도피처로 욕망충족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오락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대변하는 매체였기 때문이다. 이들 대중소설은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 시대의 드라마처럼 독자의 반응이 연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장편소설은 전작(全作)보다는 연재소설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

태준은 “장편은 대개 신문소설로서 본래의 장편과는 특수한 조건 밑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소위 전작 이외에는 집필자의 태도부터 진정한 문학 제작이 아니”라면서, “질에 있어서도 장편은 단편보다 떨어”진다고 단언했다.¹⁾ “‘쓰는 소설’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불리하니까 ‘씨키는 소설’에 붓을 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²⁾ 김남천도 신문사의 상업주의 때문에 독자 대중의 ‘인기’ 여부가 장편소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처럼 작용한다고 지적했다.³⁾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장편소설의 특성을 ‘통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론가들에게는 ‘인기’를 위한 흥미 본위의 이러한 통속성이 ‘순수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저급한 문학으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 일제의 검열과 통치 정책, 연재지의 성격은 물론이고 독자인 대중의 기호에도 민감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의 장편소설은 어느 정도의 대중성이나 통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일제 말기, 대부분의 작가들이 통속성을 지닌 소설을 연재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통속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곳에서 사용한 바 ‘통속성’ ‘순수성’의 구분은 무엇으로써 개념을 삼았는가 하는 문제다. …… 우리 장편 소설이 갖고 있는 모든 모순, 분열, 이괴(離乖)에 대해 고민하거나 초극할 방향에서 노력치 아니하고, 출판 기관의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그대로 안이한 해결 방법으로 몸을 던진 것, 그리하여 흥미 본위, 우연과 감상성의 남용, 구성의 기상천외, 묘사의 불성실, 인물 설정의 유형화 등등으로 가

1) 이태준(1994), 「단편과 장편」, 『무서록』, 깊은샘, p. 59.

2) 이태준(1994), 「조선의 소설들」, 『무서록』, 깊은샘, p. 69.

3) 김남천(1939), 「장편소설계」(『조선문예연감』, 인문사), 정호용·손정수 엮음(2000),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p. 454; 김남천(1938), 「昨今の新聞小説-通俗小説論을 위한 感想」(『批判』 52), 정호용·손정수 엮음(2000), pp. 436-437.

버린 것을 ‘통속성’이라고 불러 볼 수 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흥행극과 신극의 차이, 유행가와 시의 구별과도 흡사하다.⁴⁾

김남천의 정리에 따르면, 통속성은 소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플롯과 세부 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업주의에만 영합한 것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통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차라리 통속성이 없이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통속성이란 곧 사회성이다**.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각각도(各角度)로의 유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속성 없이 인류는 아무런 사회적 행동도 결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소설뿐 아니라 통틀어 위대한 예술이란 위대한 통속성의 제약 밑에서만 가능한 자일 것이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통속성을 떠나는 것만이 높고 새로운 예술인 줄 여기는, 전혀 객관성이 희박한 소설들이 더러 보이는 것은 딱한 현상의 하나다.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통속성’이란 말은 ‘저급’이란 말로 방하(放下)되려는 위기에 있음을 가끔 느끼는 것이다.

정말 작품에 있어 하대될 소위 통속성이란 공통만속(共通蠻俗)하는 그 통속이 아니라 작자가 대상을 영혼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흥미만으로 농(弄)하는 데서 생기는 불진실미(不眞實味), 그것인 것이다. …… 통속이란 말은 애매하게 ‘불진실’이란 말에 대응되고 있다.

누구보다 소설가들은 이 도탄에 빠진 ‘통속’을 구출해야 할 것이다.⁵⁾ (강조: 인용자)

그러나 이상의 인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태준이 강조하는 ‘통속

4) 김남천(1939), p. 456.

이 글에서 김남천은 당시의 장편소설은 “환경과 성격, 내향외향, 세대 묘사와 심리 내성, 플롯트와 세부 묘사 등의 분열상을 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순수소설들이 통속성의 유혹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장편소설 개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이태준(1994), 『통속성이라는 것』, 『무서록』, 깊은샘, pp. 78-79.

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흥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통속'을 '개인과 개인 간의 유기성', '객관성', '사회성', 그러므로 '세상(사회)에 널리 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사회의 모습을 핏진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작가는 대상을 영혼으로 통제하고, 대중에게 그 사회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성으로서의 통속성은 김남천이 언급한 '풍속'(風俗)의 역할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김남천이 '통속'을 '풍속'과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회적 습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간생활의 각종 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제도'와 '제도의 습득감'까지 포함하는 "사회의 물질적 구조상의 제 단계를 일괄한 하나의 공통적인 사회현상"⁶⁾이라고 정의했는데, '사회성'이라는 '통속'과 '풍속'이 결국 당대인들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는 그 함의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일상성이나 시사성을 떠나는 데서 문학이 융성하는 것"보다 "일상성과 시사성의 가운데 침투하여 대중의 생활 속에서 비판력과 정서를 배양해주고 진정한 향락을 누리게 하는 것만이" 문학 본래의 정신이므로 일상성과 시사성을 그릇되게 피상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⁷⁾ 일상성과 시사성을 피상적으로 오해하면 흥미 분위의 통속성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의 통속성을 '저급'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급한 것'은 "덜 공격적이고 덜 위험하며 좀 더 관습적이고 자의식이 적"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현'에 유리할 수도 있다.⁸⁾ 피터 브룩스는 이러한 멜로드라마적 양식을 "비극적 전망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자 "전형적으로 도덕주의적"이고 "악행과 왜곡된 정의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

6) 김남천(1938), 『일신상(一身上)의 진리와 모랄-‘자기’의 성찰과 개념의 주체화-』, 『조선일보』, 1938.4.22.), 정호웅·손정수 역(2000), pp. 358-359.

7) 김남천(1938), 『昨今の新聞小説-通俗小説論을 위한感想』, p. 437.

8) 피터 브룩스(2013), 이승희·이혜령·최승희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p. 41.

였다.⁹⁾ ‘풍속 멜로드라마’(melodrama of manners)가 제공하는 ‘사회적 삶의 재현’은 대중적인 통속성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작가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암시되어 있으면서도 은폐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는 이 통속적 요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기준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일제 말기의 장편소설 중에는 ‘통속소설’ 혹은 ‘대중소설’이라고 분류되어 이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소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작가가 아니었다거나 월북 작가로 분류되어 일제 말기의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작가의 작품 중에 재독(再讀)을 요하는 작품들도 있다.

이에 이 글은 1930년대 후반에 발표된 장편소설 중 주요작품으로 논의되지 않는 이근영과 엄홍섭의 장편 『第三奴隸』와 『人生沙漠』을 중심으로, ‘통속성’ 속에 드러나는 당시의 시대상과 소설 속의 지식인 청년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통속성의 가장 큰 요소인 지식인 청년 주인공들의 ‘연애담’을 주요 서사로 하고 있다.¹¹⁾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비교적 논의가 적었던 이근영과 엄홍섭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제 말기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청년상에

9) 피터 브룩스(2013), pp. 46-54.

10) 피터 브룩스(2013), pp. 30-31.

브룩스는 특히 발자크와 헨리 제임스를 통해 ‘과잉의 양식’인 멜로드라마의 상상력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발자크에게서 “풍속을 통해 존재의 더 깊은 근원에 이르는 발자크 특유의 추동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발자크도 당대에 연재지의 성격을 철저히 따르는 연재소설을 썼다는 점에서 대중소설과 무관하지 않다. 김남천이 발자크의 소설 작법을 이야기하며 ‘풍속’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풍속 혹은 통속이라는 사회의 표층적인 것들이 그 속에 사회상의 이면을 감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제 말기 소설의 통속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1) 통속적인 연애담을 통해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청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은 이 두 편의 소설들 외에도 많다. 일례로 한설야의 『청춘기』,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 『화상보』, 이태준의 『화관』, 『청춘무성』, 『별은 창마다』 등이 연애담을 주요 서사로 하여 당시의 청년상을 보여준다.

대한 전반적인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작품 외적으로, 두 작가의 공통점 또한 이 소설을 재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모두 사회 문제에 민감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과, 농촌과 노동자의 문제를 보여주는 리얼리즘적인 단편소설을 주로 발표했다. 엄홍섭¹²⁾은 카프에서 제명된 후에도 여전히 경향사상을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했으나, 일제 말기에는 대중적인 소설을 연재했다.¹³⁾ 이근영¹⁴⁾은 카프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의 지식인들이나 농촌에 관한 소설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가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1938년에 연재한 소설 『제삼노예』에서는 젊은 남녀의 애정 문제와 돈의 문제라는 다분히 통속적인 소재를 다루었고, 이러한 소재로 인해 이 소설은 통속소설로 평가되거나 이근영의 작품 중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

12) 1906년생인 엄홍섭은 카프의 맹원으로 활동하였으나 1931년 일명 ‘군기(軍旗) 사건’으로 카프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김기진 등에 의해 동반자 작가로 규정되었고, 오히려 제명 이후의 소설에서 카프 시절보다 볼셰비키적 논리에 충실한 작품을 발표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통속적인 장편들을 발표하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통속 장편을 주로 창작하였고, 1940년에는 『매일신보』의 편집기자로 활동하며 국책에 동조하는 작품을 쓰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1948년 이후에는 ‘한국문학가협회’에도 참여하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한 갈래로 귀착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조선민중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이후에는 당과 집권층의 배려 아래에서 70년대까지도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운(2010), 『추방과 탈주, 경계인의 문학적 실천』, 이승운 엮음, 『엄홍섭 선집』, 현대문학 등 참조).

13) 장명득은 엄홍섭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이원적 글쓰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단편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이기려는 노력을 그렸고 장편에서는 통속소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장명득(2007), 『엄홍섭 소설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5).

14) 1908년생인 이근영은 1930년대에 등단, 문단과의 교류 없이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1950년 가족과 함께 월북한 이후 북한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근영의 작품은 조선의 지식인의 윤리의식에 초점을 맞춘 작품 계열과 농민에 초점을 맞춘 작품 계열로 나뉘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이근영의 농민소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월북 이후에도 농민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집필하였다.

우도 많았다. 엄홍섭과 이근영의 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연재소설은 작가들의 전작(前作)들과 달리 통속 연애담이 주가 되는데다가 해방 이후의 행보-월북-로 인해 그 학문적 연구는 미진한 편으로,¹⁵⁾ 이 시기의 장편소설에 대해 논의에서도 이 소설들은 간략한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한설야나 김남천 등 구 카프 계열 작가들 역시 일제 말기에 들어서면 통속성을 보이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는 총동원체제로 인한 철저한 사상통제로 인해 이념적 지향을 드러내거나 현실비판적 시선을 보이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어떤 문학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리얼리즘적 방법으로 당대 사회상을 묘사했던 이근영이나 엄홍섭이 일제 말기에 대중소설로 ‘전향’했다는 것은 ‘조선적인 특수성’ 혹은 연재지면의 상업주의를 따른 신념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기보다도 대중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시 동원 체제에 따른 검열의 강화로 신변소설이 확대되면서 지식인이 주인공인 소설 역시 꾸준히 창작되었다.¹⁶⁾ 국가적으로는

15) 엄홍섭이나 이근영에 대한 연구는 월북작가 해금 이후인 19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초기 단편들에 집중되어 있다. 『인생사막』에 대한 연구는 『제삼노예』에 관한 연구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이는 『인생사막』이 『제삼노예』보다 통속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속성/대중성의 측면에서의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엄홍섭의 『인생사막』에 관한 논의는 이봉범(1991), 「엄홍섭 소설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옥희(2000), 『한국근대대중소설연구』(깊은샘); 장명득(2007), 「엄홍섭 소설 연구」(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윤(2010), 「추방과 탈주, 경계인의 문학적 실천」(이승윤 엮음, 『엄홍섭 선집』, 현대문학)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논의가 이 소설을 ‘통속소설’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봉범은 엄홍섭의 장편이 다른 부르주아 통속소설과는 다른 변별성이 있음을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하여 지적하였다. 이근영의 『제삼노예』에 관한 연구는 문수임(1995), 「이근영 소설 연구: 해방 전 작품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홍남(2000), 「이근영의 작품 세계와 문학적 의미」(『현대문학이론연구』13) 등이 있다.

16) 조남현(2012), 『한국현대소설사』 2, 문학과지성사, p. 608.

‘청년’을 국가적 일꾼으로 동원하기 위한 담론들도 1930년 이래 계속 강조, 강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식인 청년이 주인공이고 통속적 연애담이 주요 모티프로 작용하면서도 계몽적인 요소가 많이 부각되는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으로 지적되는 연애담은 오히려 당대 지식인청년들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근대문학 초기에서부터 청년 남녀의 애정 문제는 신문학의 새로운, 또 주요한 주제였다. 특히 근대의 ‘연애’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표상하는 하나의 ‘문화적 고안물’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의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상정하는 인식틀의 전환을 시도”한 획기적인 기획이었다.¹⁷⁾ 청년 지식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고민과 갈등을 토로하는 근대 초기의 문학에서 고민과 갈등의 계기는 주로 연애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고에서 논의할 『제삼노예』나 『인생사막』의 경우도 지식인 청년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소설의 하나로, 가장 통속적이라고 지적되는 애정담을 서사 전면에 놓고 이를 통해 도덕성(혹은 윤리성)을 역으로 강조하면서 전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일제 말기의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멜로드라마적’ 응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이들 연재 장편소설의 연애담은 재독해야 하고 그 의미를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장편들의 ‘통속성’이 보여주려 하는 당시의 현실은 무엇인지, 1930년대 후반의 멜로드라마적 응전 속에서 강조하는 온건착실하고 도덕적인 청년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삼노예』와 『인생사막』의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17) 김지영(2007),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pp. 14-16.

2. 신시대의 ‘명랑하지 않은’ 지식인 청년

일제 강점기에는 지식인이 주인공인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다. 본래 지식인은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일반적 법칙과 추상적 원칙을 빈번하고도 깊이 생각하는 존재이며, 일정한 의식세계를 창조하고 분배하며 보존하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시대와 사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존재여서 작가들이 이들을 매개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적 솔직하게 고발하는 동시에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⁸⁾

『제삼노예』와 『인생사막』 역시 “지식인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면서 또 중심사건으로 지식인의 삶의 방법, 지식인 특유의 문제제기나 해결과정 이 다루어”지는 소설¹⁹⁾의 하나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허일과 오세형 역시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민감한 청년들이다. 『제삼노예』는 동경 유학을 중퇴하고 경성으로 돌아온 허일이 직업이 없이 하숙비도 밀리는 처지에 있으나, 대학을 나오고 인물도 좋지만 폐병에 걸린 부잣집 딸의 사위가 되어 오백석거리를 받으라고 하숙집 주인 은엽에게서 제안을 받지만 이를 거절하고 노동숙박소에도 가보지만 결국 일을 구하지 못하고 하숙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하숙집 은엽이 제안한 혼처가 자신이 학생 시절 좋아하던 신희경이라는 말을 듣고 폐병에 걸렸지만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혼례를 치른다. 이백석거리를 허일의 명의로 돌린 직후 희경은 죽고, 허일은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낸 간호부 의순을 마음에 두지만 몸은 하숙집 은엽과 함께 한다. 희경과의 결혼을 통해 얻은 돈으로 허일은 1930년대에 유행했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잡지를 냈으나 잡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빚만 생기고 곧 허일은 폐병에 걸렸다. 은엽이 떠나고, 허일

18) 조남현(1984),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pp. 8-9.

19) 조남현(1984), p. 11.

이 의순에게 자신은 ‘제삼노예’였다고 유서를 쓰고 생에 대한 의지를 잃을 때쯤 노동숙박소에서 만났던 문성진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의 탈옥 소식을 보고 생의 의지를 다잡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엄홍섭의 『인생사막』은 ‘현대의학강습소’에 다니는 고학생 오세형이 의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그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다방에 있는 백은희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영섭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세형의 고향 친구인 란희까지 넘보게 되지만 결국 오세형과 황대용에게 감화를 받아 건실한 청년으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설들의 주인공은 암울한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지식인 청년이다. ‘청년’은 이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일례로 1920년대부터 조선인 사회운동 세력이 제기한 ‘청년’은 패기와 순수함,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식도 지닌 “자율적 개인으로서 이성적 판단력을 갖춘” 선구자들이었으나, 1930년대 일제 권력이 제시하는 청년상은 자율적인 청년상을 비판하며, 청년을 “지도와 훈련의 대상”, 철저하게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다.²⁰⁾ 계속되는 전쟁에 군인으로 혹은 후방의 군사로 동원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제의 이념에 순응할 수 있는 청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었다. 1930년대에 일제는 ‘선량한 공민의 양성’, ‘공민교육의 강화’라는 청년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국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신민과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자기 몫을 수행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즉 “선량한 공민을 양성한다는 것은, ‘청년’을 권력에 순치된 ‘착실’한 ‘실생활’의 인간형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²¹⁾ 게다가 ‘착실한 인간’이 되어야 할 당시 조선 청년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

20) 이기훈(2005),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69-170.

21) 이기훈(2005), p. 175.

는 상당히 불량했다.²²⁾ 그래서 일제는 청년의 체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위생과 체육을 강조했고, 학교 교과과정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도 ‘건강한 신체’ 담론이 투입했다. 건강한 육체에는 ‘명랑한 정신’이 필요했다. 이 시기의 ‘명랑’은 ‘건전’의 동의어로, 체제에 저항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규율 담론이었다.²³⁾ 체제 순응적인 감정이나 가치에는 ‘명랑’이라는 레테르를 붙이고, 식민지 경영에 방해가 되는 것에는 ‘저급’, ‘난잡’, ‘퇴폐’, ‘불온’ 등의 딱지를 붙이면서 ‘명랑’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윤리가 되었다.²⁴⁾ “반도 청년지도”에 강조되었던 “언행일치의 명랑한 인격”²⁵⁾은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제국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제국의 정책에 순종하는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의 현대 청년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도, 정신적으로 명랑하지도 못했다.²⁶⁾

-
- 22) 『청년과 건강문제 좌담회』, 『新時代』, 1941. 8. 이 좌담회에서 의학박사 외 전문가들은 1940년까지의 조선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으로 결핵, 성병, 신경쇠약 등을 꼽았으며, 조선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3) 소래섭(2011),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p. 79. ‘명랑’은 1930년대 총독부의 정책 설명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도시 명랑화’라는 명목 하에, 주택, 보건 위생, 치안, 교통 등 도시인의 생활과 위생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일과 도시인의 생활·도시 문화를 방해하는 것을 퇴치하는 것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 24) 박숙자(2009), 『‘통쾌’에서 ‘명랑’까지: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30, pp. 224-225.
- 25) 소래섭(2011), pp. 42-43.
- 26) 물론 일제강점기의 지식인 청년이 명랑할 수 있었을 시기는 없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만드는 허무주의는 근대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지식인 청년을 괴롭혔던 문제였다. 그렇지만 관제 담론이 주도적으로 ‘명랑’을 강조하던 때는 1930년대 이후의 시기뿐이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보이는 ‘과장된 명랑함’을 필두로, 체제가 요구하는 시대적 담론인 ‘명랑’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일제 말기 정비석의 소설(『삼대』, 『청춘의 윤리』)에서는 ‘명랑한 청년’을 현대 청년이 지향해야 할 청년상으로 제시하였다.

조선 청년의 현실은 암울했다. 『朝光』에서는 1937년 1월, ‘現代朝鮮青年을 激勵함’이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사회지도층이라는 이 기획기사의 논자들은 모두 조선의 청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이 논의 중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현실을 비판하지 말고, 청년의 열정을 쾌락이나 작은 분노 등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중 현인규는 개인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문명이 만나 생긴 모순들이 허무주의나 향락주의, 에로티즘, 경제만능 사상 등 부패의 극으로 치달은 현대사회의 청년들을 “불안과 혼란의 상징”이라고 했다.²⁷⁾ 일제 말기에는 제국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도 강화되었으며,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율성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상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던 현대청년들이 기성세대의 눈에는 “결여된 공간을 할수없이 차지하고있는불상한 ‘에어·포켓’”²⁸⁾의 세대로 보였다. 혹은 당시 유행했던 속류화된 영웅주의에 빠진 청년들도 있었다.²⁹⁾ 체제가 강조하던 ‘온건착실한 청년’이란 모름지기 성공에 대해 헛된 꿈을 꾸기보다는 자신과 가족,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이 고등지식인으로, 관리자로 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이유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지식인의 취업난은 1930년

27) 玄仁圭(1937), 『青年論의性格과課題』, 『조광』, 1937. 1.

28) 임희(1938), 『문예시감4 - 世代交替와 文學外的 힘』, 『조선일보』, 1938.7.21.

29) 이기훈은 1937년 이후 청년론은 매우 속류화되었고 이에 파시스트적 청년담론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상승할 의지를 결여한 ‘지도자’나 ‘영웅’의 논리가 속류 영웅론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성적인 파시즘이 영웅주의와 결합하여 속물적 출세주의로 진화하였다(이기훈(2005), pp. 194-197 참조). 또한 당시 재판을 찍어낼 정도로 유행했던 책인 주운성의 『熱血青年論』(1935) 역시 속물적 출세주의를 보여주는데, 주운성은 청년들에게 ‘입신출세’를 위해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입신출세론은 일제 말기, 지식인 청년들이 접한 생업과 미래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고, 돈을 번다고 해도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지식인의 “需要의 不可避한 頽勢”라는 현실에서 “인텔리겐차의 대량적 전멸”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지식인은 ‘불안’과 ‘허무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³⁰⁾ 생업과 진로의 문제에서 막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은 결국 “고뇌하고 방황하며 ‘몹시도 험떡이는’ 갈 곳 없이 고통받는 젊은 이들”이 되어 향락을 통해서만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명랑하지 못한’ 존재, ‘문제적인 니힐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당면한 총력전 체제 앞에서 이들 청년들을 필요로 했고, 결국 이 청년들은 쓸 만한 인재로 바뀌어야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다. 1930년대 후반, 천황제 파시즘이 대두면서 일제는 청년들의 ‘열정’과 ‘땀사봉공’의 정신으로 나라에 ‘직역봉공’하는 것이 애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직역봉공’이나 ‘근로제일주의’의 강조는 직접적으로 생산 현장에 도움이 되어 총동원체제에 일조할 수 있는 ‘생산업’에 대한 강조였다. 결국 룬펜 신세인 ‘명랑하지 못한’ 지식인청년들은 당국의 지도를 받아야만 ‘명랑’하고 착실한 청년으로 바뀔 수 있는 ‘연성(練成)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들의 피난처이며 그들의 현실을 대변해줘야 할 대중소설의 주인공이 현실의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식인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삼노예』의 허일은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으나 취직을 하지 못해 하숙비도 내지 못하는 처지이다. “신문에는 학교졸업생들의 취직성적이 좋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자리하나가 나기만하면 일의 성질과 월급여하를 불문하고 그저 등살을 미는판”³¹⁾이

30) 박치우(1935),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동아일보』, 1935.6.12.-14.), 윤대석·윤미란 엮음(2010), 『사상과 현실』. 인하대학교출판부, pp. 81-82.

31) 이근영(1988), 『제삼노예』, 권영민·이주형·정호웅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8, 태학사, p. 22. 이근영의 『제삼노예』는 1938년 『동아일보』(1938.7.-1939.2. 총 164

기 때문이다. 결국 폐병에 걸린 부자집 딸과의 결혼을 종용받는 처지에 놓인 주인공 허일은 결국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직공감독의 자리를 마다했던 것을 후회한다. 결국 숙박료 십전을 내고 노동숙박소에 가 봤지만 그곳에도 아직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룩했고, “살결이 거칠고 노동자 물이 돌기는 했으나 콧날이 고르고 이마가 넓은것이 어텐지 지식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중학졸업자가 순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인생사막』에서도 현실은 “대학 졸업하구 혈게없어 인력거 끄는수도잇는 세상”에서는 “음악학교를 졸업한 여자라하드라두” “생활을 위해서 다방 카운터에” 나오는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집에 돈이라도 있으면 “아메리카 유학하고 와서 겨우 한다는게 이따위 티이름 경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러움을 사는 것이 당대 현실이었다. 『제삼노예』와 『인생사막』의 주인공들이 당시 대중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들 주인공들은 오히려 일제와 비슷한 시선으로 조선 청년들을 진단한다.

- “지식인이란데는 좀 어폐가 있을것 같네. 어제까지도 우리의 선배로 존경하든 그들 지식인이 하로밤동안에 어떻게 변절했는가를 보소.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구 귀정하는것 보다는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면 황금의노예는 아니되겠지. 이렇게말하는것이 옳지않을까.”³²⁾
- 그는 우미관으로 빠지는 좁은 골목으로 다시 휘여지드니 오색전등이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대경성의 심장지대 환락(歡樂)의 거리로 들어스다. …… 세형의 발길이 문득 멈추어진곳은 웃음소리 떠드는소리 유달리 번잡스런 빠아 <카나리아>의 문앞

회에 미완으로 연재는 종료되었으나, 1949년 아문각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아문각의 단행본 판을 그대로 수록한 권영민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본을 텍스트로 하겠다.

32) 『제삼노예』, p. 21.

이다.³³⁾³⁴⁾

- “아아니, 보아하니 당신 스무살은 넘었을터인데 그래 빼이루한
킵쫘 못먹는대서야 어디 현대청년이되겠소, 사양말구 자시오.”
/ 머리긴 청년은 거이 강제로 세형의 손을 붙들어킵을 쥐여놓고
곁에앉은 어떤 여급에게 빼이루를 따르라고 명령한다.³⁵⁾

속류 영웅주의에서 시작된 입신출세의 욕구나 물질만능주의적인 속성
에 물든 지식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허일의 친구 박인준은 희경의 오
백석거리가 탐나 허일 몰래 그에게 구애편지를 쓰기도 했던 이중적인 모
습을 보여준다. 또 학교가 끝난 후 카페나 바에 은단을 팔러 다니는 고학
생 오세형의 눈에 비치는 현대의 조선 청년은, 모름지기 술도 잘 마실
줄 아는, 퇴폐와 향락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들을 ‘명랑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하는 듯한 도입부는 이 소설들이 ‘대중소설’로 독자뿐 아니라
당국의 입맛에도 맞는 인물형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
청년 주인공들은 ‘허무주의적’이지도 않고 ‘명랑’하지도 않은 것처럼 묘
사된다. 표면적으로는 체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듯하면서도 이면적으로
는 현실과 체제의 논리 중간쯤에 서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내세운 것이
다.³⁶⁾ 『제삼노예』의 허일이 희경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오백

33) 엄홍섭(1988), 『인생사막』, 권영민·이주현·정호웅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8, 태학사. 이 소설은 1940년 1월부터 1941년 6월까지 『신세기』에 연재되었다가
잡지의 폐간으로 중단되었는데 후반부를 보충하여 1942년 성문당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단행본을 수록한 태학사본을 텍스트로 하여, 이 소설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고, 인용 말미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34) 『인생사막』, pp. 1-2.

35) 『인생사막』, p. 4.

36) 이는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념을 포기해야만 했던 작가 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 청년의 모습을 신세대의
청년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삼
노예』나 『인생사막』을 당대의 문학담론 중 하나인 세대론과 연결지어 볼 수도 있
다. 엄홍섭이나 이근영이 세대논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기성세대 작가였던 엄

석거리'보다도 회경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으며, 육체적 만족을 주는 은업보다 의순과의 미래를 꿈꾸는 것 또한 '돈'의 노예로는 살기 싫은 지식인적 양심 때문이었다. 『인생사막』의 오세형도, 고향에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상점을 물려받아도 되는데 굳이 고학을 하면서까지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등 신념을 좇는 인물이다. 이들의 도덕적이고 신념을 좇는 모습은 사실 당대의 일반적인 지식인 청년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국가적인 청년담론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감은 통속적인 '비현실성', 판타지 같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념과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 청년들에게는 스스로 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하면서도 신념을 고수하는 청년상을 통해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다.³⁷⁾

홍섭과 신진 작가로 분류되었던 이근영 모두 당대 문단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세대논쟁에 관심을 있었을 것이다. 1930년대 후반 문학장에서는 '세대론'이 제기되었는데, 이 역시 '어떤 문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세대 논쟁에서는 신세대측에서 기성세대에 전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시기의 세대 논쟁의 특징은 그와 반대로 '신세대 대망론'의 성격을 갖고 출발한 것이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의 시대정신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현실에서, 신세대가 자신들의 시대정신을 갖고 시대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허일이나 오세형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 하는 모습이 겉으로는 '건진'하고 '명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체제의 담론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실상은 '양심' 혹은 '도덕성' 등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하나를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 37) 이근영의 『제삼노예』는 연재가 중단된 후 1949년 완결된 형태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에 죽음을 목전에 둔 허일이 삶의 의지를 다잡는 것이 문성진의 투옥 기사를 본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삼노예'가 된 이후 결국 폐병을 앓게 되고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것 자체가 신념을 포기하고 돈을 좇는 것에 대한 대가 혹은 징치(懲治)라고 본다면, 이근영이 연재 당시 의도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돈’의 문제와 지식인의 양심

이근영의 해방 이전 소설은 크게 지식인 소설과 농민 소설로 대별되는데, 지식인 소설 속 지식인 청년들은 암울한 현실에서도 자신들이 ‘지식인 계급’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러다보니 결국 이근영의 소설에서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신념과 대립하는 ‘돈’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는 『과자상자』에서부터 『탐구의 일일』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대한 고민과 자의식의 갈등,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는 이근영 소설의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삼노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근영은 1949년 아문각에서 발행된 단행본의 후기에서 “지조와 사상을 일제 앞에 팔아 버리는 무리를, 황금에 팔려다니는 사람, 황금 앞에 비굴한 사람에게 비유해서 그려” 보려는 의도로 이 소설을 썼으며, “이 작품의 주제가 오늘의 현실에도 적합한점”이 있다면서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비양심적인 지식인이 많은 씁쓸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지식인은 사실 매우 복잡한 존재이다. 1920~30년대의 지식인론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식인은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특권계급에 속할 수도, 무산계급에 속할 수도 있으며, 이도저도 아닌 채 중간에서 방황하는 집단일 수 있다. 지식인은 어느 계급에도 넣을 수 없지만, 또 어느 계급으로도 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청년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혹은 개인적 양심의 요구에 따라 어느 계층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계층 없는’(classless) 존재이다. 게다가 지식인은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가진 ‘지식’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만 하는 문화적 사명을 타고 태어난 존재들이다.³⁸⁾ 그러니 근본적으로 지식인 청년들은

38) 박치우(1940), 『지식인과 직업』(『인문평론』 1940.5), 윤대석·윤미란 엮음(2010), p. 33.

‘돈’보다는 당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요구나 문화적 사명에 더욱 민감했어야만 한다. 문제는 일제 말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웠다는 점인데, 이근영의 지식인 소설 계열에서는 이 지식인의 윤리감각 혹은 문화적 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돈’ 혹은 생계 문제 사이의 갈등을 주제화하여 지식인 청년의 시대적 고민을 그려냈다. 지식인의 윤리적 감각에 민감했던 이근영이 『제삼노예』에서 화두로 삼은 ‘돈’과 ‘연애’의 문제는 일종의 당시 ‘풍속에 관한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일상을 재현하는 동시에 인간존재와 연루되어 있는 도덕의 드라마를 표현한 것이다.³⁹⁾

이근영의 소설 속 지식인의 궤절은 타의에 의한 전향보다도 생계를 위한 ‘돈’ 때문에 일어난다. 이근영의 단편소설에는 ‘돈’과 신념이 대립하는 과정에서의 내면적 갈등이 자세하게 묘사된다.⁴⁰⁾ 『제삼노예』도 마찬가지이다. 허일은 “경성에서 전문이나대학을 들어갔드라면 가정교사 자리도 있었으니까 능히 졸업도 하였고 튼튼한데 취직도 했을것인데” 희경을 쫓아 동경에 유학을 갔으나 결국 학비 곤란으로 중퇴를 하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아무 직업도 갖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지식인일 뿐이다. 허일처럼 지식인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청년들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 소설 속에서 허일보다도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박인준과 김의순이 등장한다. 허일은 돈 앞에서 나약해지

39) 피터 브룩스(2013), p. 56.

40) 초기작인 『과자상자』의 주인공 박일문은 증병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휴직한 상황이나 취직이 힘든 시대에 자신의 빈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만 청탁과 같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집세도 밀리고 가게도 어려운 때에 신념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세를 내기 위해 빌린 돈으로 과자를 사지만, 고민 끝에 과자상자 없이 교장과 담판을 짓기 위해 나간다. 『탐구의 일일』의 주인공인 “너무 정직하고 성실해서 걱정”인 교사 현우 역시 여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살 돈도 없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길 정도로 빈궁하지만 ‘지식인’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교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기도 하고 영웅심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박인준과 김의순은 그렇지 않다. 인준은 다리가 불편한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윤필호를 보고 ‘지식인의 변절’이라고 칭한다. ‘지식인’이 아니라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황금의 노예’는 안 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그는 허일이 희경과 결혼하고 받은 이백석거리 땅으로 문화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하며 큰 수익이 안 나 사업을 접으려 할 때에도 ‘문화사업’은 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며 폐간을 반대한다. ‘지식인의 사회적 문화적 책무’를 눈앞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하는 더욱 양심적인 지식인이 바로 박인준이다. 아버지의 돈에 대한 욕심에 반기를 들고 서울로 올라와 간호부가 된 의순 역시 ‘돈의 노예’보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선을 지키려 노력하는 인물이다.

반면에 주인공 허일은 ‘돈’과 ‘신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처음 결혼을 제안받았을 때에 그는 ‘노동현장’으로 가는 등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려 노력한다. 은엽에게 붙들려 집으로 돌아온 허일이 희경과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돈’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이 좋아했던 ‘신희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희경이와의 결혼을 오백석거리와 떼놓고는 생각할수 없었니까 그점에서 불순한 결혼”일 수도 있지만 희경이 죽을 때까지 허일은 그 결혼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사랑과 황금을 구별”하려는 노력이 허일이 지키려 했던 ‘지식인의 양심’이었던 셈이다. 오히려 허일이 ‘제3노예’가 된 것은 육체적 쾌락에서 비롯되었다. 희경의 죽음 이후 은엽은 노골적으로 허일을 유혹하고 함께 살자고 한다.

그는 이순간 생활문제 보다도 두사람 재산으로 잡지하나를 발간한다면 미천이 달리지않고 넉넉히 할 수있다는 계획이 번쩍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는 사장이되고 그잡지가 조선의 잡지계를 압도할때 자기는 제절로 명사가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앉은자리가 들먹거릴만치 기쁨을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잡지계가 어느것이나 적자투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매 그는 모처럼 얻은

재산이나마 툭툭 떨어없이고 무의무탁의 신세로된 자기가 연상되었다. 이와동시에 그는 이백석거리에 팔린자기가 또다시 은업의 재산에 팔리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⁴¹⁾

잡지 발간과 같은 ‘문화’사업은 지식인의 책무이지만 ‘사업’과 수익의 문제는 ‘돈’의 영역이다. 물론 사업을 위해서는 돈의 힘이 절실하지만, 건강한 지식계급의 처녀와 결혼하고 싶은 허일은 ‘원활한 사업’을 위한 명목 하에 은업과 살림을 차린다. 문화사업과 재산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허일은 좀 더 ‘현실적’인 돈 쪽으로 기운다. 이백석거리에, 은업의 재산에 팔리는 ‘노예’가 된 셈이다. 허일에게 첫 결혼도, 두 번째 결혼도 모두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희경에 대한 애정과 문화사업에 대한 갈망이 허일의 혼인 이유였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핑계일 뿐 돈 앞에서 지식인의 신념이나 양심은 무너진 것이다. 양심을 지키는 지식인에서 “한때의 이권과 명예를 위하여 절개와 정의를 파”는 ‘제삼노예’로의 전략은 결국 폐병에 걸려 몰락하는, 일종의 징벌을 받게 된다.⁴²⁾

첫사랑인 희경과의 결혼과 사별, 육체적 욕망에 충실한 은업과의 관계, 의순에게 연정을 품는 것 등의 연애담은 정략적인 관계, 욕망, 플라토닉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희경에서 은업으로, 의순으로 허일의 마음이 옮겨가면서 ‘연애’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특히 폐병을 앓고 은업이 떠나면서 간호사로 자신을 돌봐주던 의

41) 『제삼노예』, p. 196.

42) 특히 이광수는 “현대 지식 계급”의 니힐리즘과 비관주의를 모두 ‘병’으로 은유하는데, 그의 소설에서는 육체적으로 타락하거나 돈의 노예가 된 이들이 모두 병(폐병이나 성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이처럼 질병을 육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의 재현 방식이라고 볼 때 이를 통해 작가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수전 손택(2002),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피터 브룩스(2000),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참조).

순의 태도에 감화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소거된다. 연애 관계가 소거되자 ‘사랑’으로 가리고 있던 ‘돈’과 ‘양심’의 문제만 남는다. ‘돈’ 앞에선 지식인의 휘절은 이근영이 해방 이전까지 지식인소설에서 줄곧 이야기한 주제였고 『제삼노예』에서는 그것이 타락한 지식인의 몰락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초반부에 허일이 노동자의 삶을 경험했던 것도 지식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계몽 혹은 지도자—을 ‘직역봉공’이라기보다는 담론 뒤에 감추어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재본의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냐⁴³⁾ 1949년 판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허일이 “앞으로 단 하루 살다 죽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탈옥한 문성진을 따라가는 결말이나 모두 지식인의 도덕적 신념 혹은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노예’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다시 지식인의 양심을 회복한다면 새로운 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인 청년들이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암울한 현실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현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온건착실’한 청년의 연애의 ‘재’발견

엄홍섭의 『인생사막』도 『제삼노예』처럼 연애 관계가 주요 서사이지만, 『제삼노예』보다도 연애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인생사

43) 연재본에서는 허일이 퇴원하고 미리 잡아 둔 하숙으로 가는 길에 박석고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는 곳에서 30원으로 여섯 식구의 살림을 감당하는, “감각은 정지된것같은” 노동자를 만난다. 그리고 “노동이 신성하다는것은 믿기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마음만은 신성할 것이다. 허일은 이런생각이들으면서 그의웃는 얼굴이 눈앞에 확대된다.”는, 노동자로 살 것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으로 끝이 난다.

막』에는 오세형의 미덕과 유영섭의 악행이 충돌하면서 흥미를 자아낸다. 연애관계에서 오는 통속성은 『인생사막』에 대한 평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승윤은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대중의 흥미를 우선시하는 통속성을 비판했던 엄홍섭일지라도 결국 통속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서, 1930년대 후반의 엄홍섭 소설에는 ‘과도한 열정’이나 지식인의 투쟁적 면모도 사라지고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통속성만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인생사막』의 시공간은 마치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는 무관한 주인공들이 마음먹은 대로 해결되는 곳이며 사건과 갈등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결되며 남녀관계도 사랑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짜’를 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절망적 현실은 사라지고 연애와 행복과 낭만만 있는 일종의 판타지적 공간이라고 보았다.⁴⁴⁾

이승윤의 지적처럼 이 소설의 사건과 갈등은 매우 간단하고 계몽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등 쉽게 읽힐 수 있는 흥미 본위의 소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홍섭의 장편소설은 여타의 통속적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⁴⁵⁾ 통속소설이라고 불렸던 장편소설을 쓰던 시기에 엄홍섭이 발표한 단편소설들은 대개 지식인 소설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시대적인 특수성 때문인지 이전에 보였던 날카로운 저항적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 지식인 소설들에서 엄홍섭은 진보적 지식인의 희생적인 모습과 남겨진 가족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식의 결말(『길』, 『아버지 소식』)을 보여 주거나 저널리즘에 동요되지 않으려 하는 소설가의 모습(『패배 아닌 패배』) 등 현실에 영합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엄홍섭의 장편소설을 비현실적이라 하거나 노골적인 통

44) 이승윤(2010), pp. 399-401.

45) 강옥희는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의 유형을 계몽적 대중소설, 이념적 대중소설, 통속성 대중소설로 나누고 엄홍섭의 연재장편을 ‘이념적 대중소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중에서도 『인생사막』은 ‘관념적이고 통속적인 세계의 지향’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강옥희(2000), p. 214 참조).

속성만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엄홍섭이 이원적 글쓰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소설을 쓸 것인가’의 문제에서 쓰려고 하는 소설의 핵심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홍섭은 1937년에 『通俗作家에 一言』⁴⁶⁾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통속소설과 예술소설에 대해 논의하면서 통속소설이 대중의 저속한 흥미와 오락적 호기심을 조장하는 도구에 빠지기 위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술소설도 작가의 고답적인 예술기분에 도취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독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작가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독자를 끌고 나가는 “그社會보다언제나 한거름앞서”는 문학이다. 이것을 리얼리즘적 방법론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작가는 언제든지 “그時代의 그環境의 그民衆의 앞에” 서 있고, 작품은 언제든지 “그時代의 그環境의 그民衆의 조은 거울인 同時에조은燈臺”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통속성을 사회성으로 읽었던 이태준의 논의와 비슷한 곳에 엄홍섭의 소설관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 일부의 평가나 후대의 평가와 달리 엄홍섭 자신은 이 다각의 연애관계를 흥미 위주의 통속적인 것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인간관계-다각의 애정관계-를 통해서도 당시의 다양한 청년상을 추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평면적인 인물은 주인공 오세형이다. 고학을 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던 세형은 “한 개의 목표를 세우고 현실과 어디까지든지 싸워나가며 자기의 힘으로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건실한 청년이다. 그의 주변에는 동학인 황대용과 고향동무인 여급 란희가 있고, 세형이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은희, 그리고 은희에게 학비를 대주고 지금은 그를 다방의 마담으로 고용한 유영섭이 있다. 이 소설은 이 다섯 명의 연애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모든 사건과 갈등

46) 엄홍섭(1937), 『通俗作家에 一言』, 『동아일보』, 1937.6.24.

을 이 연애 관계가 담당한다. 소설은 처음부터 이 다각의 연애관계를 위한 인물 배치를 보여주지만, 정작 이 연애관계의 중심에 있는 세형은 “내 자신이 완전한 한 사회인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심지어 친구 대용이 은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속으로 은희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을 사모하는 란희의 마음도 알아채지 못하고, 연애도, 고향에서 편안하게 상점을 경영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마다하며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노력은 그를 배반을 하지 않아 현상논문에 일등으로 당선되고 당선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고향 야학교에 기증할 정도로 ‘미덕’으로 집철된 인물이다. 오세형은 이렇게 일제 당국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을 단 하나도 갖지 않은 ‘착실함’의 표본과 같은 인물이다. 사리사욕을 위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은 그의 모습은 소설 속에서 “너무도 고지식하고 얌전해서 탈”인 “현대청년으로서서는 좀 시대에 떠러진 처세술”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면서, 세형은 당국에서 강조하던 부정적인 청년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형의 ‘온건착실’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고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은 일제 말기에 강조된 ‘선량한 공민’의 요소인 ‘온건착실’함으로 보인다. 사실 ‘온건착실’이라는 것이 체제순응적인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덕목은 아니다. 일반적인 미덕을 주인공의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한 것은 오히려 체제적인 ‘온건착실’을 전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이 소설 속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동지’가 될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세형의 친구 대용은 세형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지만, 세형보다는 좀 더 세속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먼저 세형과 동지적 관계를 맺은 인물이다. 대용은 고지식하고 올곧은 세형보다는 유연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같이 의사가 되기를 꿈꾸고 같은 여성을 사랑하면서도 질투심 가득한 라이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때문이다. 세형이 자신의 감정만 정리하는 것으로 끝

내는, 그러나 끝난 것처럼 보일 뿐 잘 봉합되지 않은 채 버려진 연애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대용의 일이며 영섭의 계락을 알아채고 여성들을 돕는 것도 대용의 몫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악한에 가까운 인물인 영섭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대용이다.

세형과 정반대인 인물은 현대청년 유영섭이다. 그는 “아메리카 같은 데에서 배워온 방중한 성생활의식”을 갖고, 은희의 학비를 보조해준 것으로 그를 소유하려 하는 속물적인 청년으로, 세형의 온건착실함과 거리가 먼 방중한 현대청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희를 먼저 마음에 두었던 대용보다도 욕망에 충실한 악한인 영섭에 의해 이 다각의 연애관계가 움직인다. 그는 은희에게뿐 아닐 동시에 란희에게도 방중한 손을 뻗치는데, 영섭의 ‘혈값의 사랑’은 세형과 대용의 미덕에 부딪혀 좌절된다. 세형과 대용은 여자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단독적인 인간으로 대하고 필요한 부분을 돕기 때문이다. 우생학적 이유로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고 여급 생활을 하는 란희를 찾아가 현실과 싸우고 운명을 개척하라며 여급 생활을 청산할 것을 설득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은희는 처음부터 세형에게 마음이 있었고, 다른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 세형-은희 쌍은 처음부터 너무 공고하여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영섭의 공작이나 란희의 질투, 대용의 순수하고 저돌적인 사랑조차도 세형-은희의 관계를 흔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연애관계의 핵심인 이 커플을 제외한 외각에서만 통속적 연애관계가 전개된다. 이는 세형과 은희의 관계가 일반적인 남녀관계에만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사랑하는 사이인 동시에 각자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하는 ‘동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사랑’의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영섭과 만나는 란희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지고 은희는 대용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안 세형이 “어느틈엔지 머리를 스치는 한줄기 허무와 고독”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형에게 사랑은 신뢰와 지지가 바

탕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연적 관계인 대용과 영섭은 이렇게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섭이 어떻게든 두 여자를 다 갖고 싶어 하는 ‘소유’로서의 사랑을 보여줄 때 세형은 오히려 ‘연애’로 종속되는 관계를 떠나 동지적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멜로드라마적 양식은 오히려 전망을 잃은 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악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인생사막』의 인물들 또한 그 대립이 명확하다. 세형과 영섭을 양극단으로 세형-은희-대용-란희-영섭을 배치시키고, 악의 쪽에 있는 이들은 차차 갱생된다. 이 소설에서 ‘갱생’은 세형의 ‘동지적 관계’ 만들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대용이 세형에게 감화되고, 이후 대용을 통해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된다.

세형의 ‘동지적 관계’ 만들기는 겉과 속이 한결같은 ‘착실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계몽적인 성격은 『무정』의 이형식이 보여주었던 시혜적인 사제관계가 아닌, 모두가 ‘평등’한 ‘동지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급 주체를 강조하고 청년을 종속적인 개념으로 다루면서, 계급의식을 자각하여 ‘계몽적 주체화’를 통해 청년이 완성된다고 보았던 1920년대의 사회주의자들의 청년운동의 특징⁴⁷⁾을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연애와 사업을 저울(秤)에 다라보고 드디어 연애와 가정을 뿌리치고 사업을 취”하는 것이 낫다는 콜론타이식 사랑⁴⁸⁾의 모습도 겹쳐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세형과 은희의 관계가 장질부사를 치료하러 다녀오면서부터 ‘사회로서 유용한 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가 강화된 남녀관계로 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동지적 관계는 다각도의 애정관계에 내재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한다. 즉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애’라는 것은 육체적 욕망이나 정신적 만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상을 갖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향해 경주하는 ‘동지’와 같

47) 이기훈(2005), pp. 141-149.

48) 「코론타이주의란 어떤 것인가?」, 『삼천리』, 1931.11.

은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애담은 ‘온건착실’함이라는 체제가 강조하는 개념을 전유하여 자각한 청년의 덕목으로 나타난 것처럼, 연애 역시 그 미덕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와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애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연애지상주의나 타락한 니힐리스트적 세계관으로 점철된 건강하지 못한 남녀의 연애관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다. 또한 연애지상주의 혹은 사상적 결합이라는 측면 등 양극단적 연애와 달리 현실과 이념을 결합하여 당대적 ‘연애’를 ‘재발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일제 말기의 대중소설 속에서 지식인 청년이 어떻게 형상화되는가를 살펴보았다. 1930년대 이후에는 많은 대중소설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지식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연애담이 주요 서사인 여러 소설 중에서도 그 동안 잘 논의되지 않았던 소설 중 이근영의 『제삼노예』와 엄홍섭의 『인생사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저급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는 통속성은 일제 말기 장편소설에서 가장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요소이고, 이 통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가 바로 연애담이다. 그렇지만 통속성이 그 사회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회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애담 속의 통속성이 어떤 현실을 보여주려 했는지, 또 어떠한 청년상을 보여주려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김남천이나 한설야, 이효석, 이태준 등의 일제 말기의 소설에도 지식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통속성을 가진 소설이 많지만 특히 이 두 편의 장편소설은 작가의 경향과 그것에서 기인한 이념적 청년상의 제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이념적 청년상이 연애담을 통해 나타난

다는 점에서 이 두 장편은 재독을 요한다. 이근영의 『제삼노예』와 엄홍섭의 『인생사막』의 연애담은 ‘사막에 서 있는 듯한 인생’ 속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신인의 신념과 ‘돈’의 문제에 천착했던 이근영은 『제삼노예』에서도 지식인 청년의 역할과 책임을 신념과 결부된 ‘돈’의 문제에서 찾았다. ‘돈’에 대한 욕망으로 휘둘러진 지식인 청년이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폐병에 걸리는 일종의 징치(懲治)를 통해, 신념을 갖고 있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개인의 양심 또는 그 신념에 반(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념을 좇는 도덕적인 청년상을 제시하였다. 엄홍섭의 『인생사막』은 다각관계의 연애담을 전면 배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장 도덕적인 미덕을 보여주는 인물과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의 충돌을 멜로드라마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엄홍섭은 당대의 부정적인 지식인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통한 계몽적 기획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통속적 연애담을 통해 ‘연애’를 단순한 젊은이들의 짝 찾기 과정으로 보지 않고 같은 이상을 향해 서로 영향을 끼치는 동지적 관계라는, 관계 재정립을 통한 이상적 형태를 제시했다. 즉 ‘온건착실한 선량한 공민’이라는 제국 담론의 틀 속에 권력의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먼 이상주의적 관계상을 설정해 보인 것이다.

이렇듯 사회 현실을 묘파하던 작가들의 대중소설로의 전향은 멜로드라마 양식으로 당대의 전망을 상실한 시대를 재현하는 동시에 이상적 청년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삼노예』의 도덕적인 청년이나 『인생사막』의 계몽적 청년은 일제가 강조하던 ‘온건착실’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 개념을 전유하여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청년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자 료】

- 김남천(1939), 『장편소설계』(『조선문예년감』, 인문사), 정호웅·손정수 역음(2000),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 _____ (1938), 『일신상(一身上)의 진리와 모랄-‘자기’의 성찰과 개념의 주체화-』(『조선일보』, 1938.4.22.), 정호웅·손정수 역음(2000),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 _____ (1938), 『昨今の新聞小説-通俗小説論을 위한感想』(『批判』52), 정호웅·손정수 역음(2000),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 박치우(1940), 『지식인과 직업』(『인문평론』, 1940.5.), 윤대석·윤미란 역음(2010), 『사상과 현실』, 인하대학교출판부
- _____ (1935),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동아일보』, 1935.6.12-14.), 윤대석·윤미란 역음(2010), 『사상과 현실』, 인하대학교출판부.
- 엄홍섭(1988), 『인생사막』(『신세기』, 1940.1.-1941.6.), 권영민·이주현·정호웅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8, 태학사.
- _____ (1937), 『通俗作家에 一言-특히 新聞小説作者에게』, 『동아일보』, 1937.6.24.
- 이근영(1988), 『제삼노예』(『동아일보』, 1938.7.-1939.2.), 권영민·이주형·정호웅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8, 태학사.
- 이태준(1994), 『단편과 장편』, 『무서록』, 깊은샘.
- _____ (1994), 『통속성이라는 것』, 『무서록』, 깊은샘.
- 임 화(1938), 『문예시감4 - 世代交替와 文學外的 힘』, 『조선일보』, 1938.7.21.
- 현인규(1937), 『青年論의性格과課題』, 『조광』, 1937.1.
- 『청년과 건강문제 좌담회』, 『新時代』, 1941.8.
- 『코론타이주의란 어떤 것인가?』, 『삼천리』 1931.11.

【논 저】

- 강옥희(2000), 『한국근대대중소설연구』, 깊은샘.
- 김강호(2008), 『한국 근대 대중소설의 미학적 연구』, 푸른사상.
- 김지영(2007),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 문수임(1995), 『이근영 소설 연구:해방 전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숙자(2009), 『‘통쾌’에서 ‘명랑’까지 :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30.
- 소래섭(2011),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 수전 손택(2002),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 이기훈(2005),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봉범(1991), 『엄홍섭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윤(2010), 『추방과 탈주, 경계인의 문학적 실천』, 이승윤 엮음, 『엄홍섭 선집』, 현대문학.
- 장명득(2007), 『엄홍섭 소설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홍남(2000), 『이근영의 작품 세계와 문학적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13.
- 조남현(2012), 『한국현대소설사』 2, 문학과지성사.
- _____ (1984),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 진선영(2013),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 피터 브룩스(2013), 이승희·이혜령·최승희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 _____ (2000),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원고 접수일: 2015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0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0월 29일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Young Intellectuals
in the Popular Novels of the Late 1930s

- Focusing on Lee Gun-Young's *The Third Slave* (『第三奴隸』) and
Um Heung-Sup's *The Desert of Life* (『人生沙漠』)

Jung, Ha Nie*

This paper purposes to consider how young intellectuals are represented in the popular novels of the later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especially in Lee Gun-Young's *The Third Slave* (『第三奴隸』) and Um Heung-Sup's *The Desert of Life* (『人生沙漠』). In Lee and Um's novels, the real situations of Joseon intellectuals and farmers in the Colonial Period were represented. But during the late 1930's, when Japanese regulations were getting reinforced, the writers could not help but write popular novels in order to avoid censorship. *The Third Slave* (『第三奴隸』) and *The Desert of Life* (『人生沙漠』) are also kinds of popular novels, but in these novels, we can find the 'real' representation of young intellectuals of Joseon who could not find any visions and who were not cheerful far from the Japanese discourse. And along with this, the new prospects of the young intellectuals of Joseon were suggested. Especially, the romance of these novels showed more than a melodramatic story; it demonstrated issues such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s' ethical relationship with money and conviction (in *The Third Slave*) or the relationship of comrades that is conviction-oriented.

*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AIST